



죽형 조태일 시인

조태일 시인 17주기 문학축전 ‘그리운 쪽으로 고개를’ “다시, 암울한 시대 온 몸으로 저항하며 시 쓰던 죽형이 그림습니다”

9월 3일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

70~80년대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선 저항시인이자, 문학사에 남을 ‘국토’ 연작시로 잘 알려진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학축전이 마련된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 광주·전남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조태일 시인 17주기 문학축전-그리운 쪽으로 고개를’이 3일(오후 4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조태일 시인의 17주기(9월 7일)를 맞아 열리지는 이번 행사에는 폭압의 시대에 맞서 싸웠던 시인의 정신과 작품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완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박남준 시인의 추모시 낭송을 시작으로, 광주고 출신 문인을 대표해 오덕렬 수필가와 시인의 제자이자 아동문학가인 이성자 작가가 추모시를 낭독한다.

조 시인이 발행하던 ‘시인’지로 등단해 활발한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준태 시인과 고교시절 친구였던 송문재 광주교사협회회 회장은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돼 고인과 얽힌 일화를 소개한다. 이들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했던 시인의 인간적 면모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고인의 문학정신에 대해 들려준다.

김준태 시인은 “조태일 선생은 조지훈의 지조, 김현승의 정교도주의, 김수영의 양가주망을 순결하게 결합해 온몸으로 시를 쓰고 뜨겁게 살았던 시인”이라고 밝혔다. 김 시인은 이번 행사에서 고향과 국토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조태일 시인의 시정신과 인간적 면모 등을 회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학축전은 조 시인의 작품 가운데 선정한 시를 엮은 시선집이 출간돼 의미를 더해준다.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박건한 시인이 제작한

시선집 ‘그대로 봄은 오는가’(시월출판사)를 시인의 가족에게 헌정하는 순서가 예정돼 있다. 이 시선집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활판 방식으로 제작돼 당대의 시대 상황에 항거했던 고인의 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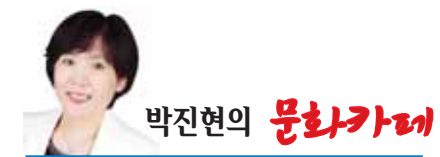
단순한 문학행사를 벗어나 공연무대도 펼쳐진다. 남도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은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인형극, 동요 등 어린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섬진강도깨비마을’의 공연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고동심, 김선자, 박남인, 우동식, 손세실리아 등 곡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시인들이 시 낭송을 통해 조태일 시인을 기억하는 순서가 마련돼 있다. 특히 제주에서 ‘시인의 집’을 운영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손세실리아 시인은 추모시 ‘시 무편’을 통해 시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기념사업회 박석무 이사장은 “조태일 시인은 불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문인”이라며 “그가 삶과 시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송고한 뜻이 영원히 계승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조태일 시인은 곡성 태안사에서 대차승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식칼론’, ‘국토’, ‘꽃은 꺾이지 않는다’,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1989년부터 광주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1999년 9월 7일 간암으로 작고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가 희망자는 당일 2시 5·18기념문화센터(광주 상무지구)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된다. 문의 062-523-7830.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대학총장 K씨는 올해 강원도 대관령에서 뜻깊은 여름 휴가를 보냈다.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 것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꿈꿨던 평창대관령 국제음악제(7월12~8월9일·대관령 음악제)를 관람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었지만 워낙 접근성이 떨어져 계획만 세우다 끝났던 것이다.

공동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매와 부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손열을 씨가 기획한 대관령 음악제는 명성 그대로였다. ‘BBB자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는 바로크, 고전, 낭

국 콜로라도의 아스펜 축제 등 여름시즌에 맞춰 열리는 유명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에서 수십 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음악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알리는 브랜드 효과가 있다.

첼리스트 정명화(72)예술감독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특별인터뷰(본보 8월21일자)에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클래식 음악제가 없다는 건 왠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서 “음악, 성악, 발레, 국악 등 지역의 풍부한 예술적 자신들을 문화 콘텐츠로 잘 ‘엮어낸다면’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클래식 음악제가 있다면

만주의를 대표하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의미하는 이들 ‘3B’의 작품을 축제의 메인 메뉴로 선보여 음악제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하일라이트인 ‘저명 연주자 시리즈’ 프로그램에는 정명화·경화 예술감독을 비롯해 손열음, 클라라 주미강, 권혁주 등 젊은 연주자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2004년 ‘한국의 아스펜’(Aspen)을 모토로 창설된 대관령 음악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만 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작은 문화이벤트로 출발한 음악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역량있는 예술감독의 기획력이 어우러져 불과 13년 만에 강원도를 클래식의 메카로 키워냈다.

‘엘 메이드’ 음악제는 클래식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로망이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브레겐츠 페스티벌, 이탈리아의 베로나 오페라 축제, 미

물론 ‘남들이 아니까 우리도 한다’는 따라하기식의 축제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음악제를 장수하는 목표도 분명치 않고 이를 구현할 역량도 갖추지 못한다면 그저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기 될 뿐이다.

하지만 광주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을 ‘잘 깨어’ 다른 도시에서 보기 힘든 ‘색깔 있는’ 클래식 음악제를 개최한다면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가는 길 여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광주는 시립교향악단과 전국 유일의 시립발레단을 보유한 만큼 클래식 음악제를 치러낼 잠재력이 크다. 가령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을 컨셉으로 하거나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음악제는 광주만의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

인터뷰 말미, 정 예술감독이 강조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딱을 거리, 인프라가 빈약한 대관령에 비해 광주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클래식 음악제를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전국 각지 참여 시인들 시 낭송
시선집 ‘그대로 봄은 오는가’ 출간
시인의 정신과 작품 세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180억 유산을 기부한다고? ...똥똥 똥친 불효자식들

청춘 ‘오 마이 갓 파더’ 9월 3~24일 공연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 똥똥 똥친 자식들, 꿈쩍 않는 아버지.

‘가족’ 이야기를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극단 ‘청춘’이 세번째 시리즈 ‘오 마이 갓 파더’를 무대에 올린다. 9월3일~24일(금 오후 8시, 토 4시·7시, 일 5시) 광주 예술극장 통(NC웨이브 옆).

아버지는 아프다. 스물다섯에 결혼해서 연탄배달부터 시작해서 안 해 본 일이 없는 아버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 전부를 고향에 있는 대학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한다. 자식들은 180억이 넘는 유산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의 이혼을 조정해서 위자료라도 받으려고 하나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일은 점점 꼬여가는데...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씨를 비롯해 김진희, 김은미, 김경오, 박신아, 강현우, 현지우씨가 함께 공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430-5257. cafe.daum.net/cctheate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창전통한옥문화관, 추석 전통문화체험 행사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추석에 맞아 9월3일부터 13일까지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연다.

9월3일 송편빚기, 한복입기,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시작으로 10일에는 20 가족을 선착순 모집해 ‘추추절 세시풍속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행사 기간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

기, 투호 던지기, 비석치기 등 전통민속놀이 상설체험이 오후 1~5시 무료 운영된다. 전통놀이 상설체험을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www.ymcakangju.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062-373-1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CBS와 함께 떠나는

종교개혁지 순례

프랑스/스위스/독일/체코

4개국 9일, 320만원

영국/프랑스/스위스/독일/체코

5개국 10일, 350만원

매주 월/화/수 매일 출발!

여행상품 특전

독일 '루터루트' 순례 CBS인증서 발행
단행본 '교양 종교개혁이야기' 증정

포함 사항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TAX) / 여행지 입장료 / 차량비
호텔 및 현지식 식사비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불포함 사항

현지 필수경비 : €110 가이드, 기사 비용
매너 팁 / 기타 개인 경비 및 개인 물감

문의 : 02-2650-7691 종교개혁500주년기획단
<http://refo2017.co.kr>